

2011. 2. 7 제256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1. 2. 7 제256호

문화·디자인

1. 지역의 역사문화유적 관리자 양성 (영국)

산업·경제

2.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심 의료연구센터 설립 (런던)

건강·복지

3. 자폐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국 사우샘프턴市)
4.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사업 실시 (도쿄)

행정·재정

5. 디지털TV 시정(市政) 서비스 확대 실시 (영국 맨체스터市)

방재·안전

6. 범죄예방용 소형 감시비행선 도입 추진 (미국 오그던市)
7. 건물 내진화(耐震化) 지원제도 시행 (일본)

도시환경

8. 군사용 병커를 '에너지병커'로 개조 (독일 함부르크市)
9. 중소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도쿄)

도시교통

10. 차도를 줄여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 (미국 시카고市)
11.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통신환경 개선 (도쿄)

도시계획 · 주택

12. 템스강 위에 떠있는 보행로 설치 추진 (런던)
 13.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로 장기발전계획체계 수립 (영국 브리스틀市)
-

문 화 · 디 자 인

1. 지역의 역사문화유적 관리자 양성 (영국)

○ ‘English Heritage’는 역사문화유적 관리자 1기 졸업생이 대부분 지방 정부 등 유관 분야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처음으로 배출된 졸업생이 지방정부(웨일즈, 노섬벌랜드, 리즈, 케임브리지 등)에 가장 많이 진출한 점으로 미뤄볼 때 공공부문에서 역사문화유적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잉글랜드 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수·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역사유적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역사문화유적 관리자 과정을 개설함. 전문가가 1 대 1로 학생을 집중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영국의 전통적인 역사유적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실무기술을 가르침. 이 과정은 역사유적의 문화·환경적 측면을 통합해 교육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 교육과정은 문화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매력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

·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한 분야를 살펴보면, 유적 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유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개발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함. 또한 역사유적과 기타 명소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전문 연구를 담당하는 학술기관 연구사, 해변 유적지가 많은 노섬벌랜드 시청에 EU 지정 해안문화재 관리 담당관 등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음. 지방정부, 민간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적 관리 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유적과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교육방침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로 진출한 졸업생도 있음. 영국에서 대체에너지로 인기를 끄는 풍력에너지 발전은 개발과정에서 농촌 경관과 유적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의 역할이 기대됨.

(www.english-heritage.org.uk/about/news/highly-skilled-historic-environment-managers-embark-on-new-careers/)

‘록본기 예술의 밤 2011’ 행사 프로그램 발표 (도쿄)

- 도쿄都의 변화가 록본기(六本木)를 무대로 하룻밤 동안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인 ‘록본기 예술의 밤 2011’ 행사가 3월 26일(토) 오후 6시부터 27일(일) 오전 6시까지 개최됨. 이 행사는 都와 都 역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도쿄 문화 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며 올해가 세 번째임.
- 이 행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都는 이 행사를 록본기의 문화 이미지를 향상하고 도쿄를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임. 상업 및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록본기 거리에 예술작품 전시뿐 아니라 디자인, 음악, 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그동안 야간에는 잘 이용할 수 없었던 미술관에서 작품 관람 등 이벤트를 즐기도록 한 점이 특징임.

(www.metro.tokyo.jp/INET/EVENT/2011/01/DATA/211i100.pdf)

(www.roppongiartnight.com/)

2.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심 의료연구센터 설립 (런던)

- 런던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연구센터를 도심에 위치한 캠던 타운에 설립하는 것을 허가함. 이에 따라 혁신적인 의료연구센터가 1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과학 중심지로서 명성을 강화하며 보건교육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약 8361m² 부지에 건립되는 이 센터는 영국 암치료센터, 웰컴 트러스트, 의료연구협회, UCL 대학병원으로 구성됨. 센터는 앞으로 암, 심장질환, 발작, 독감 등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할 예정임.
 - 바이오의료 연구소와 암센터는 1200명의 연구원과 이를 지원하는 300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다양한 교육활동도 펼치게 됨. 이를 위해 강의실, 전시공간, 교육실험실 등을 갖추어 예정임. 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우수한 인재가 런던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공공공간을 재설계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world-class-medical-research-centre-given-go-ahead-london)

3. 자폐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국 사우샘프턴市)

- 잉글랜드 남부지역 최초로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 자활사업이 시행됨. 사우샘프턴市는 햄프셔州 자폐증학회와 체육 관련 민간단체 ‘Active Nation’을 후원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체육 전문가가 시립 체육관 2곳에서 자폐 청소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함.
 - 이 사업은 자폐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운동으로 자폐증상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둬. 다른 사람과 운동을 함께 하면 자폐 증상도 완화할 수 있어 치료효과도 특특히 볼 것으로 기대됨.
 - 자폐 청소년의 집중력을 높이고 협동심도 키울 수 있는 컬링, 볼링, 수영, 워터 조빙(Water Zorbing, 바람이 든 원형 풍선에 타서 물 언덕을 내려오는 운동)이 훈련종목으로 채택됨.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자폐 청소년이 운동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자신감이 커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
 - 이 사업은 우선 6주간 시범 실시되며 市가 재정을 지원하고 햄프셔 자폐증학회와 스포츠 관련 민간단체가 공동 운영함. 자폐 청소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살피도록 보호자도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배려함.

- 민간·전문가·市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자폐 청소년뿐 아니라 체육교육계도 운동 치료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훈련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함. 구·시립 체육시설에서는 자폐증을 앓는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운동을 즐기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교사의 경우 체육과 복지가 만나는 특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성과를 체감하는 기회를 갖게 됨.

(news.bbc.co.uk/local/hampshire/hi/people_and_places/newsid_9366000/9366335.stm)

4.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사업 실시 (도쿄)

- 도쿄都는 2008년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NPO와 공동으로 시행함. 都는 2011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보급·정착 사업을 펼쳐 이들 청소년이 안심하고 지원받도록 할 예정임. 이 지원사업은 都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실행프로그램임.

- 히키코모리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사람을 총칭하는 말임. 일본에서 처음 쓰인 이 용어는 '틀어박히다'란 뜻의 '히키코모루'(引きこもる)라는 말을 명사화한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함. 1970년대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름.

- 이 사업은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해 히키코모리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임. 구체적으로 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외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② 자택이 아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

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③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 2011년부터는 NPO가 펼치는 지원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참여한 법인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지원도 실시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1/DATA/22111100.pdf)

행 정 · 재 정

5. 디지털TV 시정(市政) 서비스 확대 실시 (영국 맨체스터市)

- 영국 맨체스터市는 디지털TV 시정(市政)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시민이 24시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임. 앞으로 시민은 집에서 지역정보와 각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디지털TV가 있는 가구뿐 아니라 스마트폰, 닌텐도 위, PC 사용자도 무료 이용할 수 있음.
 - 이 무료 서비스는 시민이 도로 및 가로등 파손, 낙서 등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전달하거나 도서관 대출도서 기간 연장, 무거운 물품 수령 등을 요청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여행계획을 세울 때에도 교통정보시스템을 클릭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구직센터에서는 맨체스터뿐 아니라 영국 전체 일자리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음. 심지어 쓰레기통을 잃어버렸을 경우 디지털TV 서비스로 市에 신고할 수 있음.
 -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TV 시정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www.lookinglocal.gov.uk/manchester’를 클릭하고 닌텐도 위나 PC 사용자는 ‘<http://lookinglocal.gov.uk>’에 들어가면 됨. 아이폰

(iPhone)이나 아이패드(iPad) 사용자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Looking Local'을 검색하면 됨. 市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음.



(www.manchester.gov.uk/digitaltv)

6. 범죄예방용 소형 감시비행선 도입 추진 (미국 오그던市)

- 미국 유타주 오그던市는 범죄예방을 위해 무인 비행선 감시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임. 이 소형 비행선은 길이가 약 16m로 카메라 2대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상에서 약 122m 떨어진 상공에서 시속 약 64km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음. 전기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비행선은 4~6시간마다 재충전해야 함. 비행선에 장착된 카메라가 야간 투시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행선은 주로 야간에 운용될 예정임.
- 비행선은 폭이 좁고 움직임이 빠르며 소음이 없어 일반 시민이 쉽게 찾기 힘들. 헬리콥터나 다른 항공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비가 매달 100달러(약 11만 원) 이하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큼. 市는 이 소형 감시비행선이 각종 범죄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www.reuters.com/article/idUSTRE70F1DJ20110116?feedType=RSS&feedName=domesticNews&rpc=76)

7. 건물 내진화(耐震化) 지원제도 시행 (일본)

○ 일본 정부는 ‘주택 및 건물 내진화(耐震化) 지원제도’ 시행계획을 2011년 1월 21일 발표함. 1981년도에 정한 내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건물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진화를 촉진할 계획임. 정부는 주택 내진화율을 2008년 약 79%에서 2020년 95%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2010년 발표한 바 있음. 특정 건물의 내진화율도 2008년 약 80%에서 2015년 90%로 끌어올릴 계획임.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내진화 촉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마련해 긴급 지원할 예정임. 정부는 주택의 내진 보수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가구당 30만 엔(약 400만 원)을 지원함. 긴급하게 내진화가 필요한 건물 중에서 합의 형성이 어려운 아파트의 내진 진단을 위해 정부는 건물 1개 동당 200만 엔(약 2700만 원), 내진 보수공사에는 공사비의 1/6을 지원하기로 함. 긴급하게 내진화가 필요한 건물이란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피난로 주변 건물, 재해 발생 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탁아소, 학교, 양로원, 병원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자본 정비 교부금(2010년 약 30조 원, 2011년 약 24조 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섬. 내진 진단을 위해 민간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2/3, 지방자치단체 시설에는 국가가 1/2 또는 1/3을 지원함. 내진 보수공사비도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에는 비용의 2/3, 피난로 주변 건물에는 1/3, 기타 건물에는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 이밖에 2013년까지 주택 내진 보수공사비의 10% 정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2015년까지 내진 보수공사를 한 주택을 대상으로 2년간 고정자산세를 1/2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함.

(www.mlit.go.jp/common/000133730.pdf)

버스·지하철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는 윤리규정 도입 검토 (런던)

- 런던시의회는 최근 지하철에 비합리적인 이자율을 부과하는 개인대출 광고가 등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함. 그동안 런던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심의하면서 비윤리적인 광고를 제외시켜 왔음에도 사(私)금융권에서 내놓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런던시와 런던교통공사도 경기침체로 개인 파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권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광고 게재에 대한 명확한 윤리규정 제정에 동의함. 시는 앞으로 후원사와 광고기관 선정 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ssembly-calls-code-ethics-ads-public-transport)

도 시 환 경

8. 군사용 벙커를 ‘에너지벙커’로 개조 (독일 함부르크市)

- 독일 함부르크市는 빌헬름스부르크區에 소재한, 제2차 세계 대전 때 벙커로 사용되던 건물을 ‘에너지벙커’로 개조할 계획임. 市는 2011년 1월 19일 국제건축대전(IBA)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 벙커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과 태양열 저장시설을 갖춘 에너지센터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에너지벙커 모델, 출처: IBA Hamburg>

- 市는 문화재로 지정된 벙커 내부를 수리해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건축대전과 ‘유럽 환경수도 2011’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벙커는 발전소로 이용해 주변 주택단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사회기반시설,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도 활용하도록 함. 이로써 도시 외곽뿐 아니라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방침임.

- 벙커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영국군의 폭격으로 내부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60년 이상 방치되어 왔음. 2010년 건물 현황과 파괴 정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市는 방문객을 위해 테라스가 있는 카페를 만들 계획임. 30m 높이의 전망대도 설치해 함부르크 시내와 항구를 조망하도록 함.
- 市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임. 이러한 기초에서 ‘재생 가능한 빌헬름스부르크’를 만드는 구상을 더욱 발전시킬 방침임.

(www.hamburg.de/nachrichten/2744326/iba-energiebunker.html)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도시 재건사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상’ 수상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가 1980년대 이후 낙후되어온 남부 제철소지역과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경제 재건계획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상’을 수상함. 시카고 남부지역 재건사업은 철도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친환경 제조업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기업,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협동해 시행한 사례임.
- 이 재건사업은 향후 10년간 1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3억 달러(약 2조 583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市는 앞으로 이 지역에 최첨단업종 중심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www.metroplanning.org/news-events/article/6048)

9.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도쿄)

- 도쿄도는 2010년 4월부터 중소기업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출제도'를 시행함. 도는 2011년 1월 20일 2010년도 보고서 제출 현황(잠정)을 발표함.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가 이를 취합해 공식 발표하는 제도임.
 - 도는 원유로 환산한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3000kl 이상 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한 사업체가 여러 곳에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 모든 사업소의 에너지 사용량을 합쳐야 함. 이 제도는 '10년 후 도쿄' 계획의 실행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환경부하가 가장 적은 도시, 세계 최고의 저탄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함.
 -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소 수는 약 3만 개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00만 톤으로 이 양을 '총량 감축 의무화 및 배출량 거래 제도'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 배출량(약 1200만 톤)과 합치면 도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에 달함.
 - 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쿄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고 보조금 지급이나 감세 등의 지원책을 활용해 보고서 제출을 유도함. 그런데 의무제출자의 4배 이상 되는 사업자가 의무제출자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이 제도가 중소기업자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도는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개별 사업장별로 공개함. 2011년 2월 17~18일 양일간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세미나도 개최함.

<중소사업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

구분	사업자 수	사업소 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 톤)
의무	266	19,166	438
임의	1,198	11,507	66
전체	1,464	30,673	504

<업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

업종	사업소 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개	%	만 톤	%
도·소매업	9,249	30	102	20
부동산 등	3,569	12	134	27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437	11	34	7
공무	3,200	10	26	5
교육, 학습지원 업무	2,422	8	37	7
금융업, 보험업	1,843	6	38	7
운수업, 우편 업무	1,497	5	16	3
생활 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1,337	4	30	6
의료, 복지	1,093	4	17	3
전기·가스·열 공급, 수도사업	729	2	17	3
기타	2,297	7	52	10
합계	30,673	100	503	100

(www.metro.tokyo.jp/INET/CHOUSA/2011/01/6011k3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1/2211k200.htm)

도 시 교 통

10. 차도를 줄여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 조성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약 1.6km 길이의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고 이 공간에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조성할 계획임. 市는 녹지를 조성하고 조명시설, 벤치, 도로변 카페를 설치해 보행자가 마음껏 즐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도로섬도 확충함.
- 이 계획은 보행공간이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즐기고 활동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둬. 市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로확충 사업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해왔다고 진단함.
- 市는 미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도로 축소사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등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도로 축소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함.



<차도 축소 전(왼쪽)과 후(오른쪽)>

(www.chicagotribune.com/classified/automotive/traffic/ct-met-getting-a-round-0110-20110109,0,377920.column)

11.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통신환경 개선 (도쿄)

- 도쿄都는 도영(都營) 지하철 내에서도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1년 중에 통신환경을 개선할 예정임. 2011년 1월 20일 도쿄都 부지사와 소프트뱅크 손정의(孫正義) 사장은 이와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함.
 - 일본 내 지하철 통신시설은 비교적 최근 사업을 시작한 후쿠오카 시영(市營)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역사에서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뿐 운행 중에는 불가능함. 都는 가장 큰 규모의 지하철 사업자인 ‘도쿄 메트로’에도 지하철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임.
 - 都는 일부 노후화된 노선을 제외하고 도영 4개 지하철 노선에 휴대용 단말기나 안테나를 연내에 설치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이러한 설비를 설치하면 어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라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짐. 비용은 손정의 사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이동통신 기반 정비협회’가 부담할 예정임. 손 사장은 서울, 파리, 모스크바,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도 이동통신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지하철 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계획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음.

(東京新聞, 2011. 1. 21)

도시계획·주택

12. 템스강 위에 떠있는 보행로 설치 추진 (런던)

- 런던시는 템스강 위에 떠있는 보행로 설계안을 2011년도 ‘런던 도시계획상’ 수상작으로 선정함. 이 상은 런던시, 자치구, London First, 왕립 도시계획협회가 공동 운영하며 런던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기관에게 매년 수여함.



<보행로 설계안, 출처: www.london.gov.uk>

- 보행로 설계안은 블랙프라이어스 다리에서 런던탑까지 이어지는 1.6km 길이의 보행로를 템스강 위에 설치하는 설계안임. 2012년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된 보행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런던 수변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이 보행로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 수 있는 5개 무대공간도 설치되며 유람선과 마리나 시설과 연계되도록 디자인됨.

- 보행로 설계안은 템스강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이 템스강변을 거닐고 즐기도록 하는 등 템스강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음. 특히 市는 이 보행로가 런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구조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floating-river-promenade-design-wins-top-prize-mayor%E2%80%99s-planning-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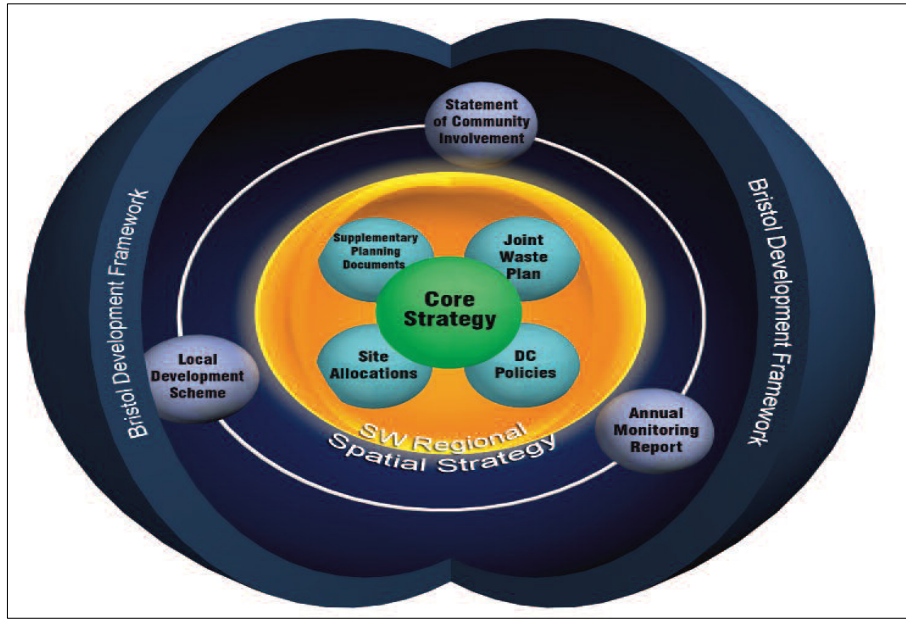
‘컴퓨터게임 박물관’을 설립해 창조산업으로서 게임의 위상 확립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1년 1월 21일 칼 막스 알레 93번지에 ‘컴퓨터게임 박물관’을 독일 최초로 설립함. 市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게임을 즐길 뿐 아니라 게임이 영화, 조형예술 등과 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산업이 된 현실을 반영한 것임.
- 이번에 市가 컴퓨터게임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컴퓨터게임이 문화·창조산업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됨. 이 박물관은 앞으로 게임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입지 결정 등과 같은 과제를 담당할 예정임.

(www.berlin.de/sen/kultur/presse/archiv/20110120.0820.327465.html)

13.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참여로 장기발전계획체계 수립 (영국 브리스틀市)

- 향후 20년간 영국 브리스틀市 발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브리스틀 발전계획체계는 여러 분야의 발전계획과 보충계획으로 이뤄진 지역발전전략으로 구성됨. 발전계획은 발전계획체계의 다양한 정책 제언으로 이뤄지며 폭넓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독립 조사기구의 검토로 수립됨.
 - 발전계획은 ① 핵심계획(장기비전 및 전략), ② 구역 배분 정책(세부지역 토지이용 배분계획 등), ③ 발전관리 정책(계획 적용 및 주요 이슈 세부계획), ④ 종합 폐기물 계획 등으로 이뤄짐. 또한 발전계획의 각 세부사항 및 지역 관련 계획과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공공 협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보충계획이 있음.
 - 브리스틀 발전계획체계에서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는 필수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보고서’(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가 작성되어 발전계획체계상 주요 부분을 이룸. 이 보고서는 시정부나 시의회가 브리스틀市 계획과 개발 이슈에 지역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설명함.
 - 市는 폭넓은 시민 참여로 시민의 열망을 충족하는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市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이웃 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을 형성하고 세부 계획과정에서 시민 참여 증진방안을 모색함. 더불어 ‘브리스틀 파트너십’과 유관 단체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브리스틀 발전계획체계와 ‘지역사회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



브리스틀 발전계획체계

- 브리스틀 발전계획체계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는 ① 지역사회단체, 환경단체, ② 이웃 파트너십 그룹, ③ 기업, 개발·시공사, 토지 소유주, 개발 금융업자, ④ 중앙·지방 정부 등임.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해 시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① 포커스그룹 구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일정한 틀이 정해진 회의에서 특정 사안과 주제를 논의함.
 - ② 워크숍 개최: 포커스그룹과 유사하나 市 미래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둠.
 - ③ 이해당사자와 회의 개최: 시정부 담당자와 이해당사자(잉글랜드 자연재단, 잉글랜드 헤리티지 재단 등)가 만나 회의를 엮.

(www.bristol.gov.uk/ccm/navigation/environment-and-planning/planning/local-development-framework/)